

분동 42년 만에 통합 금암동 새출발

전주시, 통합 기념 ‘금암동 주민센터 현판식’ 개최... 주민 편익 증진 도모·지역 발전 기대

전주시 덕진구 금암1·2동이 분동된 지 42년 만에 통합 금암동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전주시는 10일 금암동 통합청사(금암동 주민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 의원, 지역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 1·2동 통합을 기념해 ‘금암동 주민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통합선포 △기념사 △축사 △제막식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금암1동과 금암2동의 원만한 통합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함께 힘써온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통합 금암동 출범을 축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인구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발맞춰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해 왔으며, 여론 조사와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옛 금암 1·2동을 ‘금암동’으로 통합했다.

시는 기존 금암1동 주민센터를 임시



전주시는 10일 금암동 통합청사(금암동 주민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 의원, 지역 자생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 1·2동 통합을 기념해 ‘금암동 주민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통합청사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월부터 민원실과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등 내부 시설을 개선해왔다. 기존 금암2동 주민센터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민원실로 활용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금암동의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통합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주시 주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10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민간·군인·경찰·소방 등 통합방위 관련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비상 상황 대비 통합방위태세 점검·위기능력 강화 협조 논의

전주시는 10일 시청 8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민간·군인·경찰·소방 등 통합방위 관련 주요 기관장과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분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 안보 위기와 각종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위기관리를 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또, 유관기관 간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또한 신규 위촉 위원들을 위해 전주시 통합방위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과 올해 민·관·군 합동 훈련 계획 등을 발표했다.

통합방위위원들은 전주시가 지난해 8월 을지연습과 9월 화랑훈련, 10월 추무훈련 등 연이은 비상대비 훈련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관계기관 간의 충실한 협조에서 나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 전주시 안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만큼 통합방위협의회가 전주시 안보의 사명감이 되길 바란다”며 “각 유관기관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병원 간호사 연구 논문, SSCI급 학술지 게재

정서희 의료질향상팀장, 간호사 2차 피해 경험과 의료기관 공정문화 연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의료관리실 정서희 의료질향상팀장(간호사·사진)의 연구 논문 2편이 최근 국제 저명 사 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 등재 학



술지인 BMC Nursing 등에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한인간호재단(GKNF)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팀에는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정석희 교수(간호대학장), 우석대학교 간호대학 김선미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정서희 간호사가 참여했다. 정서희 팀장은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특히, 두 논문이 SSCI 학술지 중에서도 간호학 분야 최상위(Q1) 저널인 BMC Nursing (IF 3.1)과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IF 3.325)에 게재됨으로써 연구의 학문적 가치와 국제적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이차 피해(Second Victim) 경험’과 의료기관의 공정문화(Just Culture) 간의 관

계를 분석하여, 간호사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내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문화가 간호사의 부정적인 경험을 줄이고, 실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을 규명하여 조직적 개입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정서희 의료질향상팀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이 환자안전사건 경험 후 겪는 심리적 고통을 줄이고, 조직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간호 실무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송천2동 자율방재단, 새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 펼쳐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자율방재단(단장 정순우) 단원 10여 명은 동부대로 및 전주천 주변 일대에서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 활동은 겨우내 쌓인 도로변과 하천 주변에 각종 생활 쓰레기 및 낙엽을 수거하고 불법광고물을 정

비하는 등 다각적 환경정비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주천 주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집중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더욱 깨끗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정순우 송천2동 자율방재단장은 “봄을 맞아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깨끗한 지역사회

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많은 분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면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용신 송천2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시 송천2동 자율방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시설공단,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최선

시설장 내 화장실 번호 부여 등 ‘365+클린룸’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65+클린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설장 내 화장실 번호 부여 △시설물 점검 및 보수 확대 △QR 매달 걸점표 운영 △시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단은 각 화장실에 개별 번호를 부여하고, QR코드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점검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



이다.

설문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